



연탄불고기



토하젓 올린 연탄불고기쌈.



연탄불고기 한상차림.

연탄 향 솔솔 밴 정겨운 백반 한 상

나주 송현불고기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주섬 주섬 캠핑 장비를 챙겼다. 광주와 나주 사이, 영산강에 있는 송촌보 오토캠핑장으로 향했다. 푸릇푸릇한 수풀 사이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멀찍이 보이는 영산강의 물결과 자연의 냄새는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캠핑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50%만 개방해 사이가 넓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 캠핑을 즐기고 난 다음 날 남도의 맛을 찾아 나섰다.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나주 대표 불고기 맛집이다. 각종 프로그램에도 많이 소개된 송현불고기는 동신대학교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40여 년 역사 간직...한 가지 메뉴
쌀밥·토하젓·불고기 궁합 환상적
나주읍성 고샅길 산책도 매력적



불고기에 토하젓 조금.

흔히 나주 3미라 하면 나주곰탕, 영산포 홍어, 구진포 장어가 대표적이다. 요즘엔 이 3가지에 나주 한정식과 나주 불고기를 더해 나주 5미라고도 한다. 나주 불고기 맛집은 단연 '송현불고기'다. 연탄불고기 맛집으로 이미 소문은 자자하다. 송현불고기는 동신대 옆길로 가다 보면 길가에 바로 붙어있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시작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차린 식당으로 뭐 하나 건드리기만 해도 허물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이 40여 년을 넘게 장사를 해 오면서 나주에서는 자리를 잡았고 유명해졌다. 현재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나주 본점을 차렸고 광주에도 본점을 하나 냈다. 오직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맛을 지켜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듯 송현불고기 메뉴는 단출하게 '불고기' 단 하나다. 안이 살짝 들어다 보이는 주방에는 화덕이

보이고 주문을 하면 연탄불에 즉석으로 구워 내 준다. 1인분 한 접시에 250g으로 1만 1,000원이 다. 공깃밥은 별도. 상차림은 소박하지만 강력하다. 각종 쌈과 양파, 마늘 고추, 묵은지, 계란찜, 여기에 토하젓이 더해진다. 함께 나오는 우거지 된장 국도 별미다. 고기는 1인분씩 시간차를 두고 나온다. 4인분을 시켰는데 1접시에 조금 담긴 고기를 보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1인분당 1접시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따뜻한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맛있게 느끼는 순간은 없다. 처음 고기 접시가 내어 질 땐 한입에 먹기엔 부담스럽게 크다. 가위로 먹기 좋게 자르면 된다. 고기 두께는 대패삼겹살보다는 두껍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삼겹살보다는 얇다. 그래서인지, 얼핏 나온 양이 적어 보이는데 고기를 자르면 더 수북해진다. 기름이 적당히 빠진 고기는 너무 느낄거리도 않고 고소한 정도의 기름기가 남았다. 불향을 머금은 달달한 간장양념도 어찌나 간

이 딱 맞는지. 연탄불고기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고기를 감쳐뭉쳐 밥에 싸서 먹어도 좋고, 상추에 마늘 고추 등을 넣고 쌈으로 먹어도 맛있다. 개인적으로는 토하젓을 살짝 올려 먹는 조합이 가장 훌륭했다. 일단 고기랑 밥이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기만 먹었을 때 보다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흰쌀밥에 토하젓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딱딱인데, 여기에 불고기까지 더해졌다면 더 이상의 표현은 무의미하다. 워낙 입소문이 나 주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는 기다림을 필수다. 별난 고기 맛을 기대하기보단 푸근하면서 정겨운 고기 백반 한 상을 기대하면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조금 걷다 보면 나주 시내가 나온다. 나주읍성 고샅을 따라 걸으면 금성관, 나주목 문화관 등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시대의 자취를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올 가을 나주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이주연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